

## 한국 초·중등학생을 위한 인성검사 개발 및 타당화\*

현 주 한 미 영\* 임 소 현

한국교육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교사서면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예비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예비검사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예비검사는 전국 초·중·고 약 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110개의 본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검사는 전국 1,184개교 약 40,000명의 초(5학년)·중(2학년)·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10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된 'KEDI 인성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KEDI 인성검사'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의 1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EDI 인성검사'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개발된 'KEDI 인성검사'가 갖는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초·중등학생, 인성, 인성검사, 타당화

\* 이 논문은 2014년 교육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CR 2014-3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한미영, 한국교육개발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E-mail: michelle2001@emp.com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교육부는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을 통해 인성교육 7대 핵심덕목(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우수 교사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발맞추어,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으나 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성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덕목이나 역량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도교육청마다 또는 각 학교마다 나름으로 강조하는 인성 덕목을 정하고 그러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운영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추상적인 의미의 인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학생들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수없이 많은 인성 덕목이나 구성요인 중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가?’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강선보 외(2008)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성교육 담당자들조차 현재 자신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인성교육이 가능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이 보다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인성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실제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 학생들의 인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검사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지은림 외의 ‘인성지수 개발 연구(2013)’가 그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소수의 인성 구성요인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인성과 관련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인성의 구성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지은림 외 연구에서 가정한 인성의 구성요인들은 인성의 근간인 사람됨이나 성품을 대표하기에는 그 내용의 범위와 폭이 협소하다(정창우 외, 2014). 또한 지은림 외 연구에서는 본래 인성을 크게 3영역으로 나누고 그 하위요인을 9개로 구분하여, 인성의 3영역 9요인구조 모델에 기초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예비검사에서 가정한 인성의 3영역 9요인구조가 검증되지 않아 3영역 7요인구조로 이론적 틀을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수정된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개발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타당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창우 외 연구(2014)에서는 지은림 외 연구에서 주장한 인성의 3영역 7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나,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 검사도구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은림 외 연구에서 가정한 인성

의 3영역인 사회성, 도덕성, 감성(정서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및 이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영역간 중복을 보이는 문항이 많아 3영역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 및 검사문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지은림 외 연구에서는 적은 표집 규모로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검사도구의 일반화 가능성에도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무엇보다 인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구성개념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타당성이 입증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성 검사도구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성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 검사도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학생들의 인성적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학교급에 따라 인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각 학교현장에서 학교 상황에 맞는 학교 단위의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인성의 개념 및 정의

현재 인성 및 인성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성의 개념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성을 성격(문용린, 1995), 인격(손봉호, 1995), 인간의 성품(남궁달화, 1999; 조난심 외, 2004), 전인성(이근철, 1996)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성의 구성요인들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박성미, 허승희, 2012). 이와 같이 인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학자들마다 인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인성교육이 덕(virtues)에 대한 교육으로 수렴되면서, 인성(character)은 가치중립적 의미의 성격(personality)보다는 인간 본성, 인간됨이나 사람됨, 인격, 인품, 성품 등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지향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미숙(2008)은 인성이라는 용어를 인간 본성으로 보려는 입장과 인격으로 보려는 입장을 구분하였다. 먼저, 인성을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인간 본성을 기술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개입적인 규범적 의미로 이해한다. 즉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로서의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구현해야 할 가치나 규범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규범, 인간다운 모습, 인간됨의 조건을 뜻하는 것이다(장성모, 1996). 다른 한편으로, 인성을 인격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대체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인성의 의미를 정의하려고 한다(조난심 외, 2003). 이러한 입장에서 인성의 핵심 요소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인성을 인격으로 보는 입장은 인격을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업적,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가장 포괄적인 지향점이며(조난심 외, 2003),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김태훈, 1997), 인간의 사람됨(심성보, 1999)으로 보고 있다(유병열 외, 2012). 이와 같이 인성은 심리학적, 윤리학적, 종교적 관점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포괄적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의 변형을 허용한다면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는 인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 규정은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옳지 않은, 즉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것이 인성의 본질에 더욱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조난심 외, 2004). 강선보 외(2008)도 인성의 의미를 인간 본성으로 보든, 인간다운 품성이나 인격으

표 1. 인성의 정의

연구자	인성의 정의
황응연(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이근철(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고,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
이윤옥(1998)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 개념의 의미를 내포
조연순(1998)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
남궁달화(1999)	인간의 성품으로, 성품은 인간의 성질(性質)과 품격(品格)으로 구성됨. 여기서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임
조난심 외(2004)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의 아니라, 의도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
강선보 외(2008)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성품, 인간 본연의 모습
현주 외(2009)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행동적 특성
박성미와 허승희(2012)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

로 보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보든지 간에, 인성의 의미에는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인성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추병완(2004)은 인성을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성향으로 규정하면서, 인성에는 도덕성이 중핵을 이루지만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인성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미 외(2012)의 연구에서도 인성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정의하여, 인성의 개념을 개인의 심성, 성격 및 인격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인성이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병열 외(2012)의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덕 윤리학적 전통 및 최근 덕 윤리학에서의 ‘덕과 인격 특질(virtues and character traits)’, 긍정심리학에서의 ‘성격 강점과 덕성(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인격교육에서의 ‘인격(character) 및 핵심덕목(core virtues)’과 같은 다양한 관점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성 개념을 “동서양의 이상적 인간상을 지향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만한 성격적 특성과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실천 능력, 도덕적 반성 능력 등 도덕적 역량 및 건전한 사회성, 민주적 시민성 등 시민적 역량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도덕성 개념을 포함하여 인간 본연의 사람됨, 인간다운 품성, 도덕적 자질 덕성, 인격 등을 포괄하는 인간성 및 도덕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인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들을 종합해보면, 인성의 개념은

건강한 성격과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서 성격 및 정서적 요소뿐 아니라 도덕적 요소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최용성,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인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여, 인성을 인간의 긍정적 특질(개인 및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격 특질)뿐만 아니라 인성적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격 특질과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인성의 구성요인

앞서 언급한 인성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상이한 것처럼, 인성의 구성요인도 학자들마다 다양

하게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인성의 구성요인에는 대체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덕목이 대부분 포함되지만, 개인의 인성이 타인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문제 상황, 중핵적 가치, 시대적 요구 등에 따라 강조되는 인성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천세영 외, 2012). Lickona(1998)도 어떤 덕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 즉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동선에 대한 관심, 합리적인 대화,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공적인 생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이 덕의 목록은 학자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강선보 외, 2008).

Lickona와 Davidson(2005)는 인성을 ‘도덕적 인

표 2. 인성의 구성요인

연구자	구성요인
Josephson Institute의 ‘6 pillar virtues’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
Pearson와 Nicholson(2000)	책임, 자제, 용기, 자아존중, 정직, 존중, 친절, 감정이입, 공정성, 정의, 시민의 덕
Berkowitz와 Grych(2000)	자기통제, 감정이입, 사회적응, 자존감, 사회적 기술, 순종, 양심, 도덕추론, 정직, 이타심
Lickona(2004)	지혜, 정의, 불굴성, 자기통제, 사랑, 긍정적 태도, 근면, 성실, 감사, 겸손
Peterson과 Seligman(2004)	지혜 및 지식,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Lickona와 Davidson(2005)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인내, 근면, 긍정적 태도, 자기규율, 용기
조난심 외(2004)	성실, 정직, 자율성, 절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준법, 배려, 정의, 민족애, 인류애, 관용(개방성), 사고의 유연성
이명준 외(2011)	존중, 배려, 책임, 신뢰성, 정의/공정성, 시민성
천세영 외(2012)	정직, 책임, 공감, 소통, 긍정, 자율
유병열 외(2012)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준법, 정의
지은림 외(2013)	정직/정의, 책임, 윤리(어른공경), 배려/봉사, 공감,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유병열 외(2013)	지혜, 자주, 용기, 절제, 성실, 존중, 가족애, 예절, 배려, 책임, 준법, 협동, 정의, 시민성, 애국, 인류애, 생명애, 초월성
정창우 외(2014)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준법, 정의

성(moral character)과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으로 구분하고, 도덕적 인성에는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과 같은 성공적인 개인 상호간 관계 형성 및 윤리적 행위에 필요한 자질들을 포함시켰다. 수행적 인성에는 인내, 근면, 긍정적 태도, 자기규율, 용기와 같이 유혹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일련의 덕목들을 포함시켰다. Pearson과 Nicholson(2000)은 인성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아와 관련된 인성 특성으로는 책임, 자제, 용기, 자아존중을, 타자와 관련된 인성 특성으로는 정직, 존중, 친절, 감정이입을,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인성 특성으로는 공정성, 정의, 시민의 덕을 제안하였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성(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에 대한 분류 체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을 분류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여 총 200여개의 덕목을 찾아냈으며, 이들 중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덕목들을 10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하였다. 그 결과 6개 핵심덕목과 24개인 성격적 강점과 덕성으로 구성된 VIA(Virtues in Action)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된 6개의 핵심덕목은 지혜(wisdom), 자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핵심덕목은 방대한 문헌을 조사한 결과 시대와 문화를 통틀어 놀라울 정도로 공통성을 보인 것들로 상위 6개 덕목(the High Six)이라고 불린다. 6개의 핵심덕목은 각각 3~5개의 하위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강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강점들로, 여기에는 5개의 강점, 즉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로 구성되어 있다(권석만, 2008).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천세영 외(2012)의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성과 감성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실제적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판단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 윤리적 가치(덕목)를 인성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3가지 차원에 따른 6개의 핵심덕목인 정직, 책임, 공감, 소통, 긍정, 자율을 제시하였다. 지은림 외(2013) 연구에서는 천세영 외(2012) 연구를 기초로 하여, 3영역 9요인으로 구성된 인성지수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모형의 타당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의 3개 영역 7개의 구성요인을 확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덕성 영역에는 정직/정의, 책임, 윤리(어른공경) 요인이, 사회성 영역에는 배려/봉사, 공감 요인이, 감성(정서성) 영역에는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요인이 포함되었다.

유병열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핵심덕목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이론들과 도덕교육이나 인격교육을 위해 주요 덕목을 설정한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12개의 주요 덕목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로 동·서양의 '덕 윤리학적 전통', 도덕심리학에서의 '덕과 인성 특질', 긍정심리학에서의 '성격적 강점과 덕성', 미국의 인성교육에서의 '인성 및 핵심덕목'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경험적 근거 자료로는 한국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 미국 조셉슨 연구소의 '6개의 덕목',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의 핵심 가치, 일본 '도덕교육'의 주요 가치·덕목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덕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덕목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준법, 정의의 12개의 주요 덕목을 추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유병열 외(2013)는 한국적 가치 체계에 근거하여 미래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18개의 주요 가치·덕목 및 그 하위 역량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의 인성(인격)이 필요한 덕성들로 구성되고, 그러한 덕성들의 하위요소로 인성적 역량들이 설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욕구나 감정 조절 등은 절제의 덕에, 공감과 정서지능 및 사회정서적 기술 등은 배려의 덕에 각각 하위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성은 중요한 덕성들로 이루어지며 이 덕성들의 하위 능력과 자질로서 적절한 인성적 역량 요소들이 길러져야 한다는 관점에 의거하여, 인성-덕성-하위 역량요소의 구조로 인성의 구성요인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체계화 과정을 거쳐 18개의 주요 덕목, 즉 지혜, 자주, 용기, 절제, 성실, 존중, 가족애, 예절, 배려, 책임, 준법, 협동, 정의, 시민성, 애국, 인류애, 생명애, 초월성을 설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인성 및 인성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인성의 구성요인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것들은 대체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덕목,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역량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갖추어야 할 인성의 핵심 하위요인들을 설정하기 위해, 그동안 인성교육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덕목과 역량,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덕목과 역량,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부모, 학생)이 현재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덕목과 역량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 방 법

###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성 검사도구 개발 및 검사

도구의 타당화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절차 및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성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잠정적으로 인성의 핵심덕목 및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진에서 잠정적으로 추출한 핵심덕목 및 하위요인이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요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총 2회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학계전문가(윤리교육과, 교육학과 교수) 19명, 7대 광역시 인성교육담당 장학사 7명, 그리고 인성교육담당 장학사가 추천한 관내 초·중·고 인성교육담당 부장교사나 교사 19명의 총 45명으로 구성되었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갖추어야 할 인성의 핵심덕목 및 역량이 무엇인지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본 연구진에서 제시한 인성의 구인들 외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구인이나 의미가 중복되거나 대체해야 할 구인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1차 델파이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9개의 핵심덕목 및 그 하위요인의 해석 범위를 잠정적으로 추출, 분류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은 전문가들의 응답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출한 9개의 핵심덕목 및 그 하위요인들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6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에서는 최종적으로 10개의 핵심덕목 및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셋째, 검사문항 개발에 앞서 검사문항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10개의 하위요인과 관련된 학교 상황별 사례 및 일화(에피소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12명의 교사(초·중·고 각 4명)를 대상으로 서면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면담조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나 일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현실적인 검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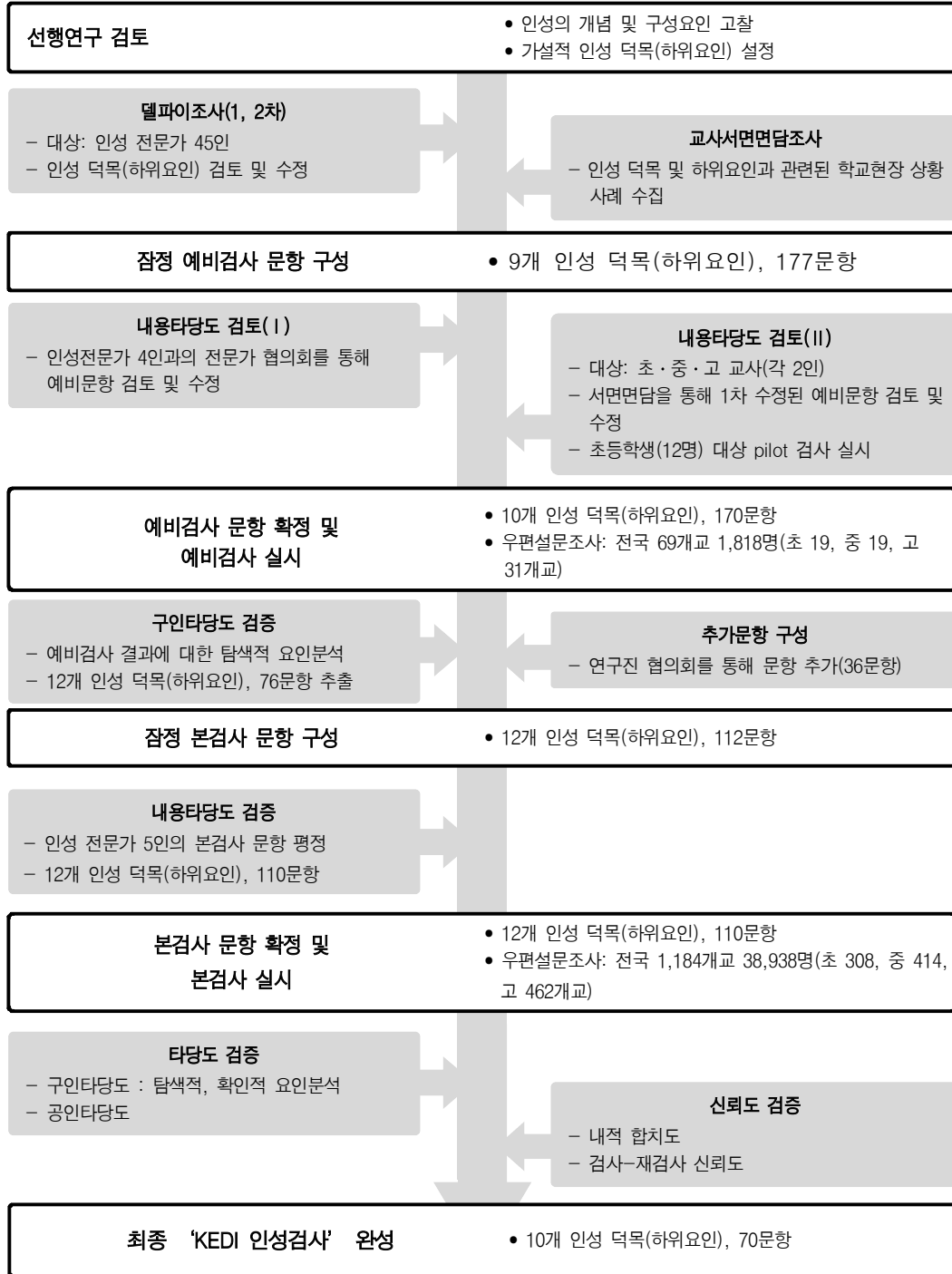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및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넷째, 검사문항은 먼저 각 핵심덕목 및 하위 요인별 조작적 정의(내용 및 해석 범위)를 기초로 하고, 인성 개별 덕목 및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기존의 검사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대표적인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여러 번의 연구진 협의회를 거쳐 문항들을 수정하고 선별하여 9개의 하위요인별 총 177개의 예비검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구성된 예비검사 문항들의 내용타당도를 검토받기 위해 4명의 인성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문항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수집된 예비검사 문항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초·중·고 교사 각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특히 본 예비검사 문항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2인에게는 각각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N=12)를 실제로 실시하게 하여 검사시간, 검사태도, 문항 이해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토 및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비검사를 통해 얻은 실제적인 정보 등을 반영하여 문항들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하위요인별 총 170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여섯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성검사에 포함될 인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질의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전국 초·중·고 69개교(초 19, 중 19, 고 31)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검사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개별 문항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문항별 평균과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검사도구의 신뢰도인 문항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

출하고,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 신뢰도 계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문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인성검사를 구성할 인성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1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12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일곱째, 예비검사 결과 및 본 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추가된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인성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하위요인별 총 110개로 구성된 본 검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여덟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성검사를 개발하고, 새롭게 개발된 인성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1,184개교(초 308, 중 414, 고 462)의 약 40,000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본검사 자료들을 토대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발된 인성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KEDI 인성검사'를 완성하였다.

#### 표집크기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2014년 현재(2014년 3월) 모집단의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13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를 기준으로 표집틀을 작성하였다. 2013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분교, 폐교나 휴교상태인 학교를 제외하였으며, 해당 학년의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10,057개교의 1,700,436명의 학생이 모집단의 표집틀에 포함되었다. 본검사의 표집은 학교급별로 지역규모에 따라 층을 나누고 각 학교급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하는 층화군집방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였

표 3. 본검사 대상 학교 표집 수

지역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	학교 수	(%)	학교 수	(%)
특별시	38	(12.3)	53	(12.8)	64	(13.9)
광역시	72	(23.4)	90	(21.7)	103	(22.3)
중소도시	106	(34.4)	127	(30.7)	166	(35.9)
읍면지역	92	(29.9)	144	(34.8)	129	(27.9)
<b>합계</b>	<b>308</b>	<b>(100.0)</b>	<b>414</b>	<b>(100.0)</b>	<b>462</b>	<b>(100.0)</b>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집된 본검사 대상 학교 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

본검사는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예비검사와 마찬가지로 우편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1개 학급의 전체 학생이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총 1,184개교 중 1,170개교로부터 설문응답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학교로부터 총 39,218명의 응답을 얻었으나 이중 불성실한 응답 280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분석대상 학생 수는 총 38,938명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총 110개로 구성된 인성검사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1,184개교 38,938명의 초(5학년)·중(2학년)·고(1학년) 학생의 자료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

출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요인회전은 이쿼맥스(Equa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분석될 표본의 상관행렬 크기가 요인분석에 적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정성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살펴보았다. KMO 적합성 지수는 .99이었고, Bartlett 검증 결과는  $p < .001$ 로 유의하였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행렬임이 판명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 수를 확인하고 본 연구의 예비검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요인 수를 12개에서 9개까지 탐색적으로 지정하며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14개였으나, 최종 요인의 수는 요인당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면서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요인 수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의 수를 1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요인의 수를 11개로 지정한 경우에는 2개의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요인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요인의 수를 10개로 지정했을 때 비교적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요인의 정의와 가장 잘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10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 이중 부하된 경우 그 차이가 .10 이상

표 4. 본검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교급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별	서울	1,870	(4.8)	1,560	(4.0)	1,934	(5.0)	5,364	(13.8)	
	부산	784	(2.0)	694	(1.8)	837	(2.1)	2,315	(5.9)	
	대구	683	(1.8)	577	(1.5)	555	(1.4)	1,815	(4.7)	
	인천	750	(1.9)	568	(1.5)	630	(1.6)	1,948	(5.0)	
	광주	508	(1.3)	390	(1.0)	434	(1.1)	1,332	(3.4)	
	대전	479	(1.2)	382	(1.0)	445	(1.1)	1,306	(3.4)	
	울산	405	(1.0)	291	(.7)	364	(.9)	1,060	(2.7)	
	세종	13	(.0)	16	(.0)	-	(0.0)	29	(.1)	
	경기	3,351	(8.6)	2,490	(6.4)	2,797	(7.2)	8,638	(22.2)	
	강원	568	(1.5)	487	(1.3)	597	(1.5)	1,652	(4.2)	
	충북	416	(1.1)	442	(1.1)	558	(1.4)	1,416	(3.6)	
	충남	660	(1.7)	598	(1.5)	650	(1.7)	1,908	(4.9)	
	전북	595	(1.5)	657	(1.7)	683	(1.8)	1,935	(5.0)	
	전남	689	(1.8)	820	(2.1)	731	(1.9)	2,240	(5.8)	
	경북	764	(2.0)	782	(2.0)	987	(2.5)	2,533	(6.5)	
	경남	859	(2.2)	925	(2.4)	1,098	(2.8)	2,882	(7.4)	
	제주	217	(.6)	145	(.4)	203	(.5)	565	(1.5)	
	지역 규모별	특별시	1,825	(4.7)	1,496	(3.8)	1,904	(4.9)	5,225	(13.4)
		광역시	3,389	(8.7)	2,775	(7.1)	3,117	(8.0)	9,281	(23.8)
중소도시		5,389	(13.8)	4,199	(10.8)	5,199	(13.4)	14,787	(38.0)	
읍면		3,008	(7.7)	3,354	(8.6)	3,283	(8.4)	9,645	(24.8)	
설립유형	국공립	13,301	(34.2)	9,535	(24.5)	7,759	(19.9)	30,595	(78.6)	
	사립	310	(.8)	2,289	(5.9)	5,744	(14.8)	8,343	(21.4)	
학교유형	남학교	0	(.0)	2,098	(5.4)	2,513	(6.5)	4,611	(11.8)	
	여학교	0	(.0)	1,257	(3.2)	2,389	(6.1)	3,646	(9.4)	
	남녀공학	13,611	(35.0)	8,469	(21.7)	8,601	(22.1)	30,681	(78.8)	
성별	남자	6,960	(17.9)	6,269	(16.1)	6,855	(17.6)	20,084	(51.6)	
	여자	6,592	(16.9)	5,529	(14.2)	6,614	(17.0)	18,735	(48.1)	
	무응답	59	(.2)	26	(.1)	34	(.1)	119	(.3)	
<b>합 계</b>	<b>13,611</b>	<b>(35.0)</b>	<b>11,824</b>	<b>(30.4)</b>	<b>13,503</b>	<b>(34.7)</b>	<b>38,938</b>	<b>(100.0)</b>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문항수)	요인 부하량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b>요인 1. 자기존중 (<math>\alpha=.896</math>)</b>		
39.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734	.734
63.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84	.684
51.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644	.644
93.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644	.644
103.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41	.641
73. 나는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86	.486
83. 나는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8	.438
<b>요인 2. 성실 (<math>\alpha=.869</math>)</b>		
72.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633	.675
50. 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잘 지킨다.	.555	.665
92.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마지막에 하기보다 미리미리 준비한다.	.552	.653
52.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잘 참는다.	.507	.656
84.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게임이나 채팅 등의 유혹을 잘 견딘다.	.505	.600
26. 나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484	.603
14.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459	.594
94. 나는 부모님과 약속한 게임/TV시청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347	.548
<b>요인 3. 배려·소통 (<math>\alpha=.887</math>)</b>		
67.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준다.	.611	.692
33.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497	.641
45. 친구들은 나에게 자주 내 의견을 묻는다.	.487	.593
32. 나는 친구가 화가 나있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82	.648
57. 친구들은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471	.620
77.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449	.646
66.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400	.647
76.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399	.653
21.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한다.	.360	.565
20. 나는 친구가 상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준다.	.345	.527
<b>요인 4. (사회적) 책임 (<math>\alpha=.880</math>)</b>		
110.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579	.747

98.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556	.730
78. 나는 모둠과제(조별과제)나 학급행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한다.	.523	.677
108. 나는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494	.699
88. 나는 가족회의나 학급회의에서 정한 규칙은 지킨다.	.397	.633
68.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377	.644
<b>요인 5. 예의 (<math>\alpha=.835</math>)</b>		
6.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691	.594
42.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687	.633
30.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602	.639
18.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523	.586
19.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434	.621
43. 주변 어른들은 나에게 예의가 바르다고 말씀하신다.	.349	.577
7. 나는 길이나 집 근처에서 아는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한다.	.315	.459
<b>요인 6. 자기조절 (<math>\alpha=.829</math>)</b>		
104. 나는 짜증이 나더라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730	.708
64.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한다.	.629	.662
74.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604	.588
28. 나는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462	.537
105.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393	.545
106.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346	.556
<b>요인 7. 정직·용기 (<math>\alpha=.837</math>)</b>		
71.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564	.619
49.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538	.608
91. 나는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526	.641
61.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507	.644
81. 나는 진솔하다(진실하고 솔직하다).	.457	.615
25.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한다.	.387	.546
13.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야단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	.355	.460
<b>요인 8. 지혜 (<math>\alpha=.841</math>)</b>		
4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생각한다.	.494	.654
53. 나는 친구들에 비해 생각이 깊은 편이다.	.487	.580
17.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을 고루 살펴본다.	.470	.596
5. 나는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판단한다.	.455	.611

65.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431	.650
85.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한다.	.387	.623
<b>요인 9. 정의 (<math>\alpha=.815</math>)</b>		
47.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543	.628
35. 나는 왕따를 당하는 학급친구들에게도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537	.609
59. 나는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친구의 인권(생명, 자유, 평등 등을 보장받을 권리)을 침해하지 않는다.	.485	.602
89. 나는 친구를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484	.602
23.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72	.580
<b>요인 10. 시민성 (<math>\alpha=.822</math>)</b>		
70. 나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597	.585
80.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자랑스럽다.	.586	.545
69. 나는 다문화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58	.613
90. 나는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432	.509
24.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려운 지구촌 아이들을 돕기 위해 용돈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 싶다.	.430	.561
79.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406	.533
12. 나는 세계의 공동문제(환경, 인권, 빈곤, 세계평화 등)에 관심이 있다.	.391	.505
100. 나는 집단(예: 학급, 학교, 국가 등)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377	.519

나지 않는 문항들, 그리고 요인 해석상 내용타당도가 낮아 요인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0문항을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70문항이 선택되었다. 이에 70문항을 10요인구조에 근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요인 1은 자기존중 및 자기효능과 관련된 7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자기존중'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근면 및 인내(끈기)와 관련된 8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성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타인 이해 및 공감, 친절성, 그리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10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배려·소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책임성,

협동심, 규칙 이행과 관련된 6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책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및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관련된 7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예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 신중성과 관련된 6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자기조절'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솔직 및 정직성, 용감성과 관련된 7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정직·용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8은 개방성 및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6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지혜'로 명명하였다. 요인 9는 공정 및 공평, 더 나아가 인권존중과 관련된 5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정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10은 애국심,

표 6.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자기존중										
2. 성실	.62**									
3. 배려·소통	.56**	.57**								
4. 책임	.61**	.66**	.75**							
5. 예의	.57**	.55**	.61**	.62**						
6. 자기조절	.54**	.62**	.62**	.62**	.52**					
7. 정직·용기	.54**	.63**	.69**	.68**	.56**	.61**				
8. 지혜	.57**	.67**	.70**	.71**	.55**	.63**	.65**			
9. 정의	.49**	.54**	.64**	.65**	.55**	.58**	.63**	.57**		
10. 시민성	.53**	.55**	.63**	.67**	.57**	.52**	.59**	.57**	.65**	

\*\**p* < .01

타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8개의 문항들로 묶였기 때문에 ‘시민성’으로 명명하였다.

예비검사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본검사에서 예비검사에서의 ‘효도’와 ‘공경’의 개별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예의’로 명명한 것과 ‘배려’와 ‘소통’의 개별 요인이 ‘배려 및 소통’ 요인으로 묶인 것 이외에 다른 요인구조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가 어느 정도 타당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 10개의 요인들과 각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문항-총점 상관과 신뢰도 계수를 알아 보았다. 하위요인별 최종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 간 상관은 .43~.73으로 양호하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역시 .815~.896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개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표 6 참조), 각 요인 간 상관은 .49부터 .75 사이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인성의 요인구조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그리고 시민성의 10개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타당함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Lickona와 Davidson(2005)은 인성을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과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으로 구분하고, 도덕적 인성에는 관계 지향적이고 성공적인 개인 상호간 관계 형성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필요한 자질로,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수행적 인성은 과업 지향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덕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인내, 근면, 자기규율, 용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Pearson과 Nicholson(2000)도 인성을 세 가지 영역, 즉 자아, 타자, 사회와 관련된 인성으로 구분하였고, 박성미와 허승희(2012)의 연구에서는 인성의 구성요소를 개인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세 가지 가치 차원별 하위요소로 묶어 설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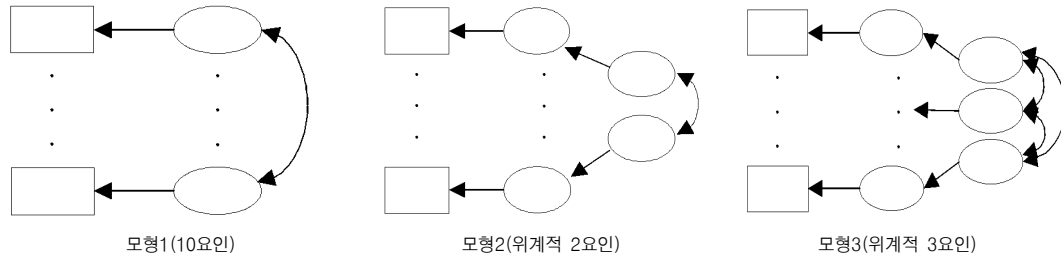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인성이 위계적인 구조로 구분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인성의 10요인 모형과 인성의 위계적 구조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10요인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위계적 2요인 모형과 위계적 3요인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위계적 2요인 모형은 인성이 1차적으로는 10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지만 이는 다시 2개의 상위요인인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였다. 2개의 상위요인 중 개인적 영역에는 지혜, 성실, 자기존중, 자기조절과 같은 개인이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개인적 역량 요소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영역에는 정직·용기, 예의, 배려 및 소통, 책임, 정의, 시민성과 같은 타인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사회적 역량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건강

하게 만드는 사회적 역량 요소를 포함하였다. 위계적 3요인 모형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여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영역의 3개의 상위요인을 가정하고, 개인적 영역에는 지혜, 성실, 자기존중, 자기조절을, 관계적 영역에는 정직·용기, 예의, 배려 및 소통을,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는 책임, 정의, 시민성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인성의 10요인 모형과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위계적 2요인 모형 및 위계적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제시한 각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모형1과 경쟁모형인 모형2, 모형3과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지수에서 모형1의 적합도가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모형을 가정한 모형2와 모형3은 적합도 지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1과 경쟁모형인 모형2와 모형3의  $\chi^2$ 값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chi^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모형	$\chi^2$	df	NFI	TLI	CFI	RMSEA
모형1 (10요인 모형)	158901.800***	2301	.878	.874	.880	.043
모형2 (위계적 2요인모형)	166996.998***	2334	.872	.869	.874	.044
모형3 (위계적 3요인모형)	166581.193***	2332	.873	.870	.874	.04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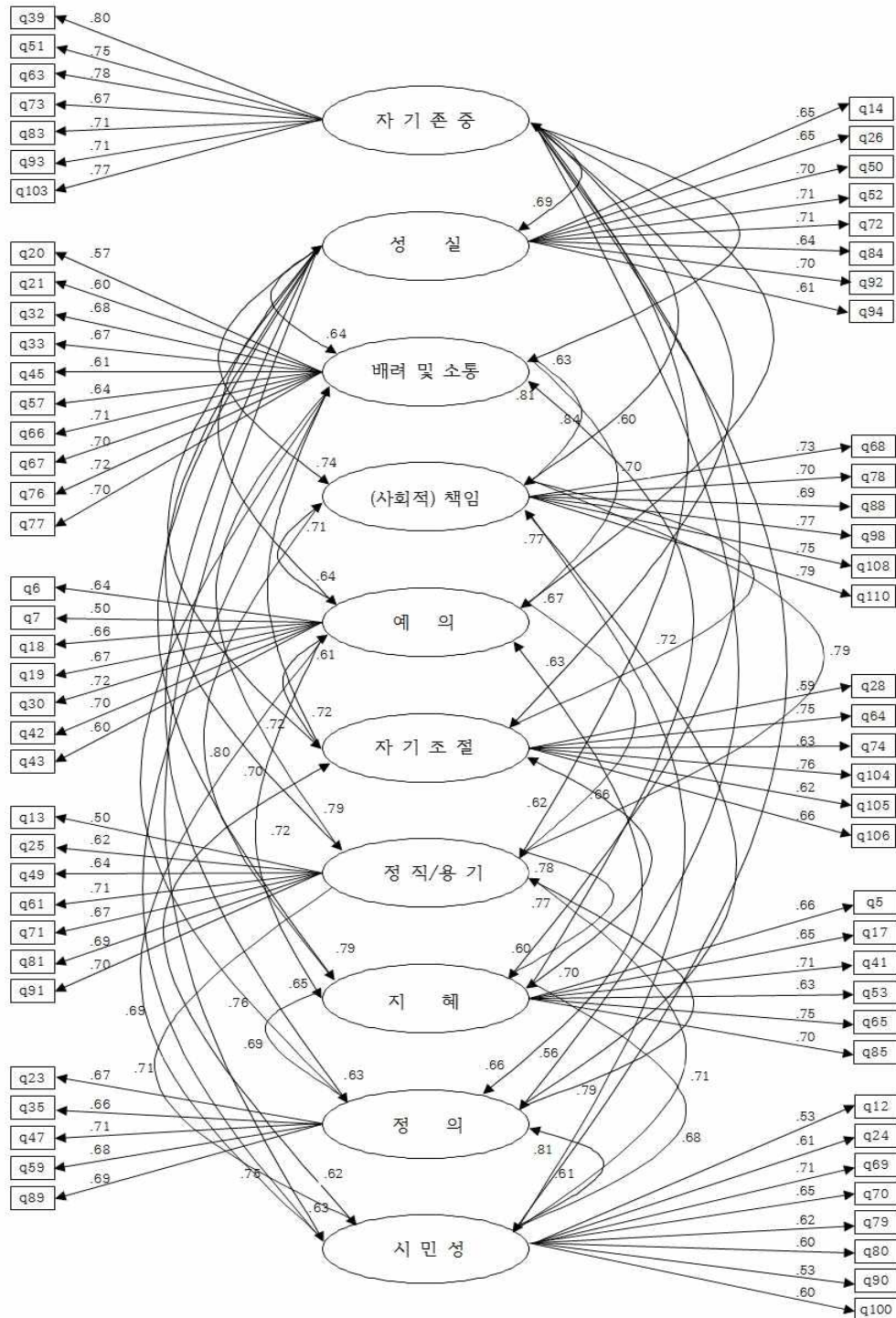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계점을 지니고 있다(Hong, Malik, & Lee, 2003;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즉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져 좋은 요인 모형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김주환 외, 2009).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NNFI)와 RMSEA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형1이 경쟁모형인 모형2나 모형3보다는 TLI와 RMSEA값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1과 모형2, 3의 TLI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인 .90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형1의 TLI값이 .878로 다른 두 모형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값에서는 세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인 .05를 만족하지만 모형1의 RMSEA값이 다른 두 모형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모형1이 경쟁모형인 모형2나 모형3보다는 더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인성의 10요인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개별 문항들과 1차 요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요인계수 추정치는 .50~.81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각 문항들이 해당 하위요인들에 대한 타당한 지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인성검사를 'KEDI 인성검사'로 명명하였다.

####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의 공인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약 1,000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은림 외(2013)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실시하였다.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새로운 검사를 제작하였을 때 새로 제작한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타당도를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의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07).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을 측정하는 준거로 삼을 만한 검사도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지은림 외(2013)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 60문항을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지은림 외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여러 제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성 검사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연구라는 점과 역량적 관점 측면에서 자기조절이나 타인과의 공감 및 소통 능력과 같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성적 역량을 인성의 구성요인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인성을 개인 및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격 특질뿐만 아니라 인성적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지은림 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의 하위요인별 점수와 공인타당도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보이는 것처럼, KEDI 인성검사의 하위요인별 점수와 공인타당도 검사와의 상관계수( $r$ )는 .579~.764 수준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전체 인성점수 간의 상관도 .831로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의 10개의 하위요인들과 공인타당도 검사의 하위요인들 중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은림 외 연구에서는 인성을 크게 사회성, 도덕성, 감성(정서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요인을 7개로 구성하고 있다. 7개의 하위요인은 사회성 영역에 배려/봉사와 공감, 도덕성 영역에 정직/정의, 책임, 윤리(어른공경), 그리고 감성(정서성) 영역에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기

표 8. KEDI 인성검사와 공인타당도 검사와의 상관관계

KEDI 인성검사	상관계수( <i>r</i> )
1. 자기존중	.629**
2. 성실	.591**
3. 배려·소통	.685**
4. (사회적) 책임	.758**
5. 예의	.664**
6. 자기조절	.579**
7. 정직·용기	.636**
8. 지혜	.631**
9. 정의	.690**
10. 시민성	.764**
인성(총점)	.831**

\*\*  $p < .01$

조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의 10개의 하위요인들과 지은림 외 연구의 7개의 하위요인들 중 개념적으로 유사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표 9 참조), 본 인성검사의 '배려 및 소통'과 지은림 외 연구의 '배려/봉사'와의 상관은  $r = .664, p < .01$ , '공감'과의 상관은  $r = .676, p < .01$ 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본 인성검사의 '예의'와 지은림 외

연구의 '윤리(어른공경)' 간의 상관은  $r = .586, p < .01$ , '자기존중'과 '긍정적 자기이해' 간의 상관은  $r = .799, p < .01$ , 본 인성검사의 '자기조절'과 지은림 외 연구의 '자기조절' 간의 상관은  $r = .532, p < .01$ 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보다 본 인성검사의 '정직·용기'와 지은림 외 연구의 '정직·정의' 간의 상관은  $r = .379$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직'은 공통적이지만 '용기'와 '정의'가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는 인성의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측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뢰도 검증

KEDI 인성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KEDI 인성검사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았다. KEDI 인성검사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73이었고,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도 .815~.896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KEDI 인성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토하여 검사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검

표 9. KEDI 인성검사의 하위요인과 공인타당도 검사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KEDI 인성검사	지은림 외(2013) 인성검사					
	배려/봉사	공감	정직/정의	윤리 (어른공경)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기존중					.799**	
배려 및 소통	.664**	.676**				
예의				.586**		
자기조절						.532**
정직/용기			.379**			
정의			.451**			

\*\*  $p < .01$

표 10. KEDI 인성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하위요인명	상관계수(r)
1. 자기존중	.833**
2. 성실	.835**
3. 배려·소통	.824**
4. (사회적) 책임	.810**
5. 예의	.798**
6. 자기조절	.779**
7. 정직·용기	.777**
8. 지혜	.812**
9. 정의	.766**
10. 시민성	.820**
인성(총점)	.886**

\*\*p < .01

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두 번 실시하여 두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성태제, 2007). 이를 위해 약 1,000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2주 간격으로 KEDI 인성검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한 것과 같이, KEDI 인성검사의 하위요인별 검사-재검사 상관계수(r)는 .766~.83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시간적 안정성을 보였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규모 표집을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성 및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제기된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개념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덕목(virtues)은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일관된 특질로서 행위 경향성, 기술 또는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그동안 덕목이 교육되는 과정은 인지적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에 반해, 역량(competency)은 인지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개선하려는 흐름 속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개념을 덕목과 역량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인성을 개인 및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격 특질뿐만 아니라 인성적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나 문화에 적합한 인성검사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먼저 설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성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상이한 것처럼, 인성의 구성요인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인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대한 학계의 일관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선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이외에 전문가 델파이조사, 교사서면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성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갖추어야 할 인성의 핵심 하위요인들을 설정하기 위해, 그동안 인성교육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덕목과 역량,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덕목과 역량,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부모, 학생)이 현재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덕목과 역량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의 문항 진술 방식은 인성의 하위요인별로 개인의 지식이나 신념, 태도를 측정하기보다는 ‘각 인성 덕목이 실제 개인의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가, 그러한 인성적 행동은 나의 본연의

모습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인성의 하위요인별로 개인의 인지적 이해(예: 정직은 중요하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등)를 측정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특정 덕목이나 역량을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인성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인성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자 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의', '시민성'처럼,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의 덕목들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제한적으로 개인의 지식이나 신념, 태도, 미래의 행동경향성 등을 묻는 문항을 일부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검사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나 일화(에피소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사문항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하위요인, 즉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으로 구성된 'KEDI 인성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의 하위요인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덕목인 자기존중, 성실, 자기조절, 정직·용기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인 배려·소통, 책임, 예의, 지혜, 정의, 시민성 등을 균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성들, 즉 개인의 삶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성격 특성들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인성이 무엇이며 인성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과 학교현장에서 인성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 또

는 편파적으로 이해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특성들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포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KEDI 인성검사'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인성교육을 계획할 때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인성 덕목이나 역량은 무엇인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성적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많은 학교들이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는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학교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의의와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KEDI 인성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초·중등 공용검사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검사문항 진술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를 사전에 점검하였다. 즉 검사문항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검사(pilot test)를 실시, 관찰하도록 하여 검사 이해도뿐만 아니라 검사시간이나 검사 태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엄격하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가 초·중·고 학생에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인성의 구인이 동등한지를 알아보는 동등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

편 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순차적으로 확보되어야 각 학교급에 따른 인성 수준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10요인 모형에 대한 구인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인 동등성 검증을 통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남녀 간에도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 검토해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인성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긍정적인 착각 등의 자기보고식 척도가 갖는 제한점들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평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은 대체로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반항기의 학생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고등학생들은 때로 엄격한 '도덕적 이상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는데 반해 실제 행동에서는 그러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행동을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가 갖는 제한점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고미숙 (2008). 도덕철학적 관점의 인성교육. *강선보 외(2008), 인성교육*, 파주: 양서원.

교육부 (2008. 8).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태훈 (1997). 도덕과교육에서 인성교육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8, 274-314.

남궁달화 (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문용린 (1995). 미국의 인성교육. *철학과현실*, 12, 97-103.

박성미, 허승희 (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 35-47.

손봉호 (1995).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인성교육*, 27-54.

심성보 (1999). *도덕교육담론*. 서울: 학지사.

유병열, 김남준, 정창우, 김봉제, 박영하, 정병석, 조석환 (2012). 인성교육의 체계화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유병열, 윤영돈 (2013). 한국적 가치체계에 의거한 유덕한 인격 함양의 인성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제4회 AKS포럼(주제: 한국적 가치지형도 탐구)*, 265-313.

이근철 (1996). 초등학교 도덕 인성교육의 발전방향. *경인초등도덕교육학회*.

이명준, 진의남, 서민철, 김정우, 이주연, 김병준, 박혜정 (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윤옥 (1998).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장성모 (1996).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한국초등교육학회 창립 10주년 학술세미나*.

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 (2014).

-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조난심, 윤현진, 이명준, 차우규 (2003). 도덕교육 학신론. 서울: 문음사.
- 조난심, 문용린, 이명준, 김현수, 김현지 (200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연순, 김아영, 임현식, 신동주, 조아미, 김인정 (1998).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1. 교육과학연구, 28(1), 131-152.
- 지은림, 도승이, 이윤선, 박소연, 주언희, 김혜경 (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 천세영, 김왕준, 성기옥, 정일화, 김수아 (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용성 (2001). 도덕성 형성에 있어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추병완 (2004). 도덕교육의 이해(증보판). 서울: 백의.
- 현 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 (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응연 (1992). 심리학과 생활. 서울: 배영사.
- Berkowitz, M. W., & Grych, J. H. (2000). Fostering goodness: Teaching parents to facilitate children'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 371-391.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68-84.
- Lickona, T (1998).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20(4), 77-84.
- Lickona, T (2004). Character matters(New York: Simon and Schuster). 유병열 외 공역(2006), 인격교육의 실제. 파주: 양서원.
- Lickona, T., & Davidson, M. (2005) *Smart & Good High Schools: Integrating Excellence and Ethics for Success in School, Work, and Beyond*. Courtland, NY: Center for the 4th and 5th Rs.
- Pearson, Q. M., & Nicholson, J. I. (2000).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trategies for Administrators, Teachers, and Counselors.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38(4). 243-251.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차원고접수 : 2015. 01. 05.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6.  
최종게재결정 : 2015. 02. 17.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Test

Ju Hyun

Mi Young Han

So Hyun I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haracter scale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o evaluat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o this end, this study made the best use of various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delphi survey, experts meeting, e-mail interview to teachers and developed preliminary test items. Also, to verify the content validity character experts rated those items. On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test results, 110 items of KEDI character test were selected. The KEDI character test was administered to sample of 40,000 students in elementary(fifth grade), middle(second grade) and high(first grade) school. Ten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en-factor structure. KEDI character test is composed of 10 constructs, namely self-respect, integrity, emotional & social intelligence, responsibility, self-regulation, honesty & courage, wisdom, justice, and citizenship. KEDI character test shows strong levels of reliability(internal, test-retest) and clear patterns of concurrent validity. Finally, the implication of result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character, character test, validation*